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특구’ 글로벌 AI 기업 유치 기대 ↑

에너지위원회, 전국 4곳 최초 지정

전력 직접 거래·전기요금 별도 설정

‘자산지소형 시스템’ 요금 인하 가능

재생에너지 도내 공급 ‘RE100’ 실현

규제 특례...첨단기업 전남行 뒷받침

금지사 “年1조 에너지기본소득 최선”

전남 전역이 전력 직접 거래와 전기요금 별도 설정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AI데이터센터 구축과 글로벌 AI 기업의 전남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은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였던 솔라 시도 기업도시에서 전남 전역으로 확대 지정돼 22개 시·군 모두 분산특구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남 전역과 제주, 부산 강서구, 경기도의 왕시 등 총 4곳을 분산특구로 지정했다. 4곳 모두 앞서 최종 후보지 발표 때 ‘신산업 활성화 유형’으로 분류된 곳이다.

신산업 활성화는 ‘분산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연계하고 특구에 부여되는 특례를 이용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유형’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에서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포함한 설비용량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해당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른바 ‘자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안에 대형 발전소를 짓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망으로 수도권과 대도시들에 공급하는 현재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가

일으키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특히 분산특구에는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전체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에너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전남을 기회 의 땅에서 황금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최종 후보지였던 솔라시도 기업도시(지정면적 14.5km)에서 전남 전체지역(지정면적 1만 2천303km)으로 대폭 확대 지정돼 22개 시·군 어디서든 분산특구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남 전역 특구 지정으로 AI시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글로벌 AI 기업을 전남으로 유치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오픈AI와 SK그룹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남 공동 구축을 결정했고, 삼성SDS 컨소시엄도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을 선정해 공모 신청을 한 만큼 특구 지정과 맞물려 더 많은 첨단기업이 전남으로 몰려들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 영암 대불산단 등 도내 곳곳이 마이크로그리드로 구축된다. 이로써 전남에서 생산한 재생 에너지를 산단에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게 돼 재생에너지 100(RE100) 실현을 앞당기고 미래형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에너지 신기술 규제 특례로 AI 기반 에너지 관리에서부터 초대형 ESS 미래 신기술도 전국에 앞서 실증하고 사업화가 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154kV 변전소 등 전력공급시설도 우선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에너지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6.6GW에서 2030년 29GW, 2035년 58.6GW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도내 곳곳에 RE100산단을 만들어 AI·에너지 수도로 도약, 연간 1조원 규모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AI실증도시 광주”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미래컨퍼런스’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3강 AI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제안

姜시장, 서울미래컨퍼런스 기조연설

배경훈 과기부장관 만나 공식 요청

‘AI 실증도시 광주전략’ 발표 통해

AI연구소·모빌리티 신도시 등 제시

“국산AI반도체 리더보드 역할”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의 광주 설립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미래컨퍼런스 AX 시티와 6G, 한국형 미래도시 포럼’ 기조연설에서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NPU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국산 AI반도체양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AI반도체 전문인력을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PU는 인공지능(AI) 추론 연산에 특화된 AI 전용 칩이다. GPU(그래픽처리장치) 대비 전력 효율이 높아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차세대 반도체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시는 그동안 국가AI데

NPU란? NPU(Neural Proc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AI 연산 전문 칩이다. GPU(Graphic Processing Unit·그래픽처리장치)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학습, 고성능 연산에 효과적인 반면, NPU는 GPU로 개발한 AI 서비스에 적합하며 전력 효율이 높다.

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국산 AI반도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왔다”며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으로 국산 AI반도체 시장에서 광주가 리더보드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에이직랜드·에임퓨터·퓨리오사·AI·리벨리온 등 25개 AI반도체 팹리스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2023-2024년 200억원 규모의 1단계 NPU 실증·검증 사업을 통해 퓨리오사·AI·리벨리온·사피온이 국산 NPU를 출시했다. 현재까지 정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아 국산 NPU를 출시한 기업은 10개 사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하는 2단계(2025-2027년) 400억원 규모의 고도화·상용화 사업에 현재 6개사가 참여해 국산 NPU 기반 AX 추진을 위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 시장은 이날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강 시장은 ‘AI 실증도시 광주 전략’으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과 함께 ▲국가AI연구소 광주 설립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메가센트릭스형 국가AI집적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국가AI연구소 광주 설립을 통해 국내의 우수 인력 유치, AI 응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 기업을 성장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자·산·학·연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산업통상부의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특화산업에 맞게 광주에 실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가AI데이터센터, AI영재고, GI ST, AI 이노스페이스 등이 위치한 광주 첨단3지구 일원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AI집적단지 지정받아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첨단3지구와 AI 모빌리티 신도시 일원을 싱가포르 ‘풍광디지털지구’처럼 규제 없는 도시 단위의 메가센트릭스로 지정해 AI 실증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꿈꾸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AI 3강 도약을 위해 광주에 주어진 역할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AI 실증도시 구현을 통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변은진기자

한 사람의 보험금과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과수익 보장
보험가입 필수
http://x&3@%NNT

알바 했는데 해불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